



히말라야 잠재운 산사람들의 우정



엄홍길의 약속
심산 저음 | 이레 퍼블 | 9천원



에베레스트 절벽에 얼어 붙어버린 동료 시신 거두러 떠난 휴먼원정대 18인의 생사를 뛰어넘는 감동 스토리

2004년 에베레스트 등정 때 하산 중 숨을 거둔 세 명의 산악인 故 백준호, 박무택, 장민.

여성 산악인 오은선은 해발 8,750m 에베레스트 절벽에 꽂혀 있는 채 매달려 있는 박무택의 시신을 목격한다. 엄홍길과 박무택은 칸첸중가 설산에서 비부아(아영장비 없이 야외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를 하며 생사를 함께 했고, K2와 시사파마, 초모랑마(에베레스트의 티베트 지명) 등정에도 동행한 형제 이상의 사이다. "무택이는 나한테 등반 파트너 이상이에요. 그 높음 내 친동생이나 다름없었어요."

엄홍길 대장은 이미 예정돼 있던 로체사르(8,400m) 원정을 뒤로 미루고 에베레스트의 차디찬 설원 속에 외로이 누워있는 후배들을 가족의 품으로 데려올 결심을 한다. 마침내 18명으로 이루어진 휴먼원정대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초모랑마로 떠났다.

처음 휴먼원정대가 결성될 때 국내의 산악인들은 모두 '불가능하다'는 말만을 되풀이 했다. 시신이 있는 8750미터면 세계 제 2봉인 K2보다도 더 높은 곳인데, 과연 수습이 가능할 수 있을까란 물음에 모두들 회의적이었다. 그곳은 이른바 등반가인 라인홀트 메스너가 명명한 '죽음의 지대'에 속해 있어 아무리 뛰어난 등반가라 해도 제 한 몸 가누기조차 버거운 곳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정상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한 원정이었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과 그 밑에 누워 있는 대원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합니다. 특히 이번 등반 과정 내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들의 상처를 곁에서 지켜봐야만 하는 것은 건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침내 77일간의 사투 끝에 박무택의 시신을 수습해

에베레스트의 양지 바른 곳에 안장했다.

이 책은 엄홍길 대장이 이끄는 '2005 한국 초모랑마 휴먼원정대'에 참여한 산악전문 작가 심산 씨가 그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그려낸 것이다. 책은 산 사나이들의 사선을 넘는 우정을 전해주었다. 지난 7월 8일 MBC-TV를 통해 방송됐던 '아, 에베레스트'나 신문지상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던 고인들의 개인적인 면모, 원정지에서의 모습, 휴먼원정대의 진한 우정과 동료애를 잘 담아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동료들을 구하려다 차례로 희생되는 고인들의 고독한 최후, 사직서까지 내며 친구를 위해 원정대에 합류한 가슴 뜨거운 사내들의 순수한 열정, 눈사태, 크레바스(빙하가 뒤물리면서 생긴 깊은 웅덩이), 낙석, 강풍, 실족 등 눈 깜짝 할 사이에 생사가 갈리는 극한 상황, 그리고 세계 등반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죽음의 지대'에서의 시신 수습과정 등은 길고 험난했던 원정 과정을 극적으로 부각시킨다.

"지난 20년간 히말라야를 등반하며 저는 오직 정성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휴먼원정대 등반에서 한 번도 정성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던 것들을 되짚어보는 계기였지요." 이런 엄씨의 고백처럼 그가 떠올린 것은 우정, 의미, 약속 등이었다. 오랫동안 빛바래왔던 단어들에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이기도 했다. 8000m가 넘는 곳에는 예전에도 시신들이 있었다. 정성만을 보고 올라갈 때 잠시 공포와 연민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길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렇게 묻는 것이다. "히말라야 정상에 서는 것이 시신을 외면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일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내 도전을 포기할 수 없었던 휴먼원정대. 그들을 통해 우리는 인간애, 우정, 의리, 약속, 희생과 같이 너무도 빛바랜 단어들의 소중한 가치를 새삼 깨닫게 된다. 바로 이들이 그려낸 '휴먼 스토리'는 각박해진 삶의 무게 때문에 '휴머니즘'을 잃어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의미에 대한 고찰을 이끌어 내고 있다. 또한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한 악우(友友)들의 혼을 거두기 위해 석달이라는 시간을 보낸 휴먼원정대는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아름다운 약속을 보여준 모범이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에베레스트 등정 후 하산 때 숨진 백준호, 박무택, 장민 등을 위해 기념탑을 만든 휴먼원정대원들.



아심만 심리학 - 정말 궁금한 사람의 심리를 읽는 90가지 테크닉
시부야 쇼조 저음 | 김경인 옮김
리더북스 펴냄 | 9천원

사람의 표정, 말투, 사소한 행동과 습관, 업무스타일, 즐겨 쓰는 소품과 패션 등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90가지 심리 테크닉을 알려주는 책이다.

정신의학자이면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조예가 깊은 지은이는 이 책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끊임없이 대비시키면서 인간심리의 심연으로 다가가는 '타인의 마음읽기' 노하우를 제시한다.

특히 지은이는 인간심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며, 우리가 정말 알고 싶어하는 인간심리가 무엇인지, 나아가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상대의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행위를 지은이의 일반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풍성한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책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대인관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다. 우선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숨겨진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습관을 때 2·3차 가자는 사람은 마음이 외로운 사람

습관을 알면 성격이 보인다

이다 △값은 또래와의 사귀기 대부분인 사람은 자기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다 △흔히 여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타고나길 낙천적인 사람이다 △차도까지 나와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은 신경질적인 사람이다 △타 업종 사람들과 교류가 잦은 사람은 미래의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포장지를 찢어 선물을 꺼내는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다.

지은이는 또 얼굴표정만 봐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눈썹이 연한 사람은 정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눈동자가 큰 사람에게는 한눈에 반하기 쉽다 △눈을 내리뜨는 사람은 뭔가 켜가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눈동자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계산에 강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동안 시선이 왼쪽 위로 향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다 △시선을 전혀 맞추지 않는 사람은 당시에 부정적인 사람이다.

또 지은이는 직장에서 업무 스타일을 보면 그 사람의 심리를 알 수 있다고 소개한다. 예를들면 쉽게 OK하는 사람은 나중에 NO라고 말할 사람이라는 것이다.

메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은 가벼운 대인공포증이 있는 사람, 단순작업이라도 머리를 쓰는 사람은 의욕이 있는 사람, 술자리에서 일 얘기만 하는 사람은 슬럼프에 빠진 사람, 책상 위가 어질러진 사람은 지나치게 '사람 좋은' 사람, 행적을 너무 앞세우는 사람은 강박관념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심리학 책이지만 사람의 행동과 말을 통해 타인의 심리를 쉽게 파악하도록 설명해 놓아 심리학은 물론 대인관계에 불안을 느끼거나 취약한 사람들에게 인간의 심리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주기에 충분하다.

조영만(서울대 심리학과 강사)

“범죄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한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허리밴드, dbx, AKG, MACKIE, CROWN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시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부: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원 - 남 0명, 여 0명
- 근무처: 본인 거주지 • 문의: 050-5244-0108

불교방송과 현대불교신문이 자세히 소개한

영산범음집

안글해설판 사물장단악보

친도제(49재)나 각종 서식에 영산범음집(靈山梵音集) 한 권이면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산범음집 특징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도록 구성됨. 운운(云云)은 없음
- 전문(全文)에 걸쳐 한글해설을 실어 내용을 알고 집전할 수 있도록 함
- 장경연구소의 서체지원으로 고문자(古文字) 이체자(異體字) 100% 완벽조판
- 바라춤과 요점 등 각종 진언의 사물장단 (쇄, 태성, 북 등)악보를 실어 이해를 도움
- A4크기, 얇고도 질긴 최고급 재질, 이중배접 고서제본방식. 320쪽 (본문, 해설편, 장단편)

정가 50,000원 (구입시 상용천도집 증정)

영산범음집 인문본, 상용천도집 범음범패집 카세트와 비디오를 가지고 계신 스님들과 불자님들은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총 121047-52-069528
우체국 600841-02-046873 (예금주 이판암)

(080)208-8000. 8008
범패연구소 http://www.pompae.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페트형강판
슬라브, 사질, 교외,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포공사)

서울: 011-379-0667
강원도: 010-3044-9708
경기도: 019-690-4018
충청도: 011-327-7697
경상도: 010-9697-8580
전라도: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소원성취 기도도량

봉화 약수암

봉화에 위치한 약수암은 부처님의 가피와, 산신각의 산신 할아버지의 영험함, 그리고 경내 석간수로 흐르는 약수의 치유력으로 고통받아 오던 신도들이 건강을 되찾고, 소원하던 바를 이루어 가며 점차 기도도량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난치병으로 죽음을 기다리던 김순보 보살님,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 지병으로 삶을 포기했던 박정희 보살님... 약수암 부처님께 의지해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한 결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도님들 또한 약수암의 기도로 원하는 바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삶의 끝에서 있다고 절망하는 신도님들께 마음과 질병의 치료를 함께 할 수 있는 약수암을 알려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돈보다 지극한 정성의 마음이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부천2리 약수암
(분천역 바로 뒤 / 영주에서 봉화를 거쳐 현동, 울진방향)
054)672-7932